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평등·인력정책연구실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변화순
		삶의질전략단		연구원		문희영
출장기간	2011. 9. 24 - 10. 1		출장지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스웨덴: 룬드		
출장목적	국제적 시각으로 살펴 본 한국 여성정책 30년 점검 및 향후 방향성 모색					
경비부담	우리원 부담(일반연구사업비) (10,593 천원)					
주최기관	-					
방문기관		면담자		내용		
OECD		Willem Adema (사회정책과 선임연구원)		- 성 평등 사회를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선 방안		
		Melanie Fassbender (거버넌스 프로그램 책임자)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향후 방향		
		이민원 (사회정책과)		- 국제기구와 KWDI 협력방안		
UN OHCHR		강경화 (UN OHCHR 부대표)		- 성 주류화 전략의 중요성 - 제도와 의식의 간극 현황		
		Isha Dyfan (UN OHCHR 여성인권&젠더 팀장)				
		Ajith Sunghay (UN OHCHR 아태지역 인권사무소)				
University of Lund		Carolyn Hannan (경제&사회지리학 부교수)		- 여성 전담기구 성과 - 차별의 가시화 방안 - 한국 특수성 반영한 여성정책 설계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2011. 10. .
출 장 복 명 자 : 변화순 선임연구위원
문희영 연구원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 국제사회 관점을 통해 본 한국여성정책 30년 점검-

2011.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 . 출장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 성 평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의 구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2011년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I)」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함.
- 국제기구 관계자의 면담은 정책수요자의 관점을 통한 여성정책 30년 점검의 일환으로 국제적 여성정책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여성정책의 위치를 살펴 보기 위하여 기획되었음.

2. 출장국, 기간 및 출장자

- 출장국가 및 도시 : 프랑스(Paris), 스위스(Geneva), 스웨덴(Lund)
- 출장기간 : 2011. 9.24 - 10.1 (6박 8일)
- 출장자 : 변화순 선임연구위원(평등인력정책연구실), 문희영 연구원(삶의질전략단)

3. 국제기구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방문지	면담자	사진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원 (OECD 사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llem Adema (OECD 사회정책과 선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lanie Fassbender (MENA-OECD 거버넌스 프로그램 책임자) 	
UN OHC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경화 (UN OHCHR 부대표) ○ Isha Dyfan (UN OHCHR 여성인권&젠더 팀장) ○ Ajith Sunghay (UN OHCHR 아태지역 인권사무소) 	 
University of L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olyn Hannan (University of Lund 교수) 	

II. 출장 결과

1.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한 여성정책 성과

- 한국은 성 주류화를 성공적으로 제도화 한 국가 중 하나임.
 - 훈련 프로그램 구성, 전담센터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상적임.
 -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성 주류화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기에는 힘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정치·행정의 현실을 알고 있음.
 - 교육분야의 성 주류화는 교육부가, 농업분야의 성 주류화는 농림부가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 부처에는 그러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의 대부분은 읽고 체크하고 끝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고 있어 우려가 됨.
- 향후 교육, 농업, 보건, 산업 등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방면에서 성 주류화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신경써야 할 것임.
 - 성 주류화는 전략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현재 MENA-OECD Governance Programme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를 진행중임.
 - 성별영향평가와 정책의 다양한 영향평가를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관한 설문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이 때 한국이 참여하여 그간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해주길 기대함. 이 설문은 본 부서의 내부 연구 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 KDI와는 협력 사업 및 연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 KWDI와는 아직 교류가 없음. 향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관련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함.

2. 노동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여성정책

- 한국 사회를 성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 노동시장에 여성정책이 개입함으로써 가족, 교육 등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성 평등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임.
 -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 및 복지시스템의 재정적 유지를 위해 여성의 노동력을 더 많이 포괄해야 함. 이를 위해 여성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교육율은 OECD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여성인적자원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음.

- 가족정책의 핵심은 성 평등이고, 이러한 성 평등은 개별 가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특히 노동시장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임.
 - 노동시장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북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과정을 거쳤음. 일례로 스웨덴은 가사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법제화했음. 현재 많은 스웨덴 남성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책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권리로 생각함. 사고방식이 변화한 것임.
 - 남성의 육아휴직 문제는 단순히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임금의 성별격차와도 관련됨.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내는 경향이 높았던 것임.

-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고용시스템 자체임.
 - 한국 노동시장의 수 많은 제도들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음.
 -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문화로 인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자리잡을 수 없음. 한국에서 시간제로 일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저임금, 전망없는 직업의 동의어임.
 -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근무자도 정규직과 똑같은 사회적 편익에 대한 권리를

가짐. 정규직 근무자보다 받는 이익은 적지만, 모든 시스템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는 차이가 없음.

- 하지만 여성들의 시간제 근무에 함정이 있음. 처음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은퇴할 때 자신이 받을 연금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만약 나라가 육아에 관해 충분히 보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자가 되도록 강요받는 것이라면, 여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함.
-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욕망은 증대하고 있지만, 직장과 삶을 조화시킬 수 없도록 노동시장이 작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가 여성에게 직장인지, 가정인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 한국 내 국제기업들이 국내기업보다 더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국제기업은 하는데 왜 한국기업은 그렇게 못 하는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생산적인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단순히 보육시설을 더 짓는 것만으로는 성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기존 관행을 바꾸어야 함.
-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에서조차 3세 이전의 아이를 둔 여성은 일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가치관이 보편적임. 보육시설 등 보육지원책이 많이 변화했지만 여성들은 아이가 세살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음. 평등지수가 높다고 평가받는 유럽에서조차 노동시장의 관행이 존재함.

○ 한국 노동시장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교육열임.

- 한국은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닫힌 사회구조의 양상을 보이는 데 일조하고 있음.
- 교육을 통해 여성을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을 갖도록 만드는 엘리트 교육을 지속시키는 것 대신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3.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여성정책

○ ‘여성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는 언설이 지배하게 되면서 불평등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여성과 남성은 불평등함. 스웨덴에도 엄연히 성별 불평등이 존

재하지만 대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함. 8,90년대와 비교해 여성과 남성의 직업 선택 현황, 정신건강 상태 등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우리는 할당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러한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은 성별에 관한 문제가 아닌 자신감에 대한 문제예요" 라는 스웨덴 멘토링 프로그램 광고 문구가 이러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 불평등의 현실을 가시화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여성정책 및 관련제도는 훌륭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가 성 평등하지 못한 것은 제도와 의식의 간극(gap)이 크기 때문임.

- 호주제 폐지를 통한 동등한 상속권 등의 문제만 보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한국문화에서 여성은 결혼하면 출가외인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실제로 종종재산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음.
-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만큼 후속작업이 중요함.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여 실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여성정책이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사회의 태도나 사회적 규범, 관행, 가치관 등은 답보상태임.
-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의대생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제도와 가치나 태도에 대한 간극이 크므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UN이 조직개편을 통해 UN WOMEN을 설립하게 된 중요한 목적은 제도와 현실·의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함임.

-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6-7개의 조직을 운용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일을 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어, CSW 같이 정책을 만드는 곳과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 UNIFEM을 통합시켜 제도와 현실·의식의 간극을 줄이고자 했음.
- CEDAW가 한국에 계속 권고하는 것은 실제로 수행된 법·정책·제도가 무엇인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전히 법·정책·제도의 효과를 막는 제약이 있다면 그 제약이 무엇인가, 그 제약을 극복하려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들임.
- 일례로 정책대상의 범위가 충분히 넓고, 보편적인가를 CEDAW가 점검하면서 한국의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가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함.

4.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중요성

-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KWDI,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여성관련 정책기관이 많아 한국 여성정책이 단시일 내 발전할 수 있었음.
- KWDI와 같이 정책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에 보냄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반응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 인상적임.
- KWDI는 정책의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새 법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역할을 담당함.
- 여성발전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한국 여성정책 방향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여성가족부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에 역점을 둔 정책, 지역 및 국제적 기관과의 협력정책 시행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업무가 가족분야에 집중됨으로써 여성정책의 의미가 희석되는 경향이 보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여성'이 다른 항목 뒤에 덧붙여지는 부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 우려됨.
- 한국 여성정책 전담기구는 국제기구에 한국 여성정책을 follow up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한국의 ESCAP 북경행동강령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함.
- 또한 KDI 등 다른 정책연구기관은 영문 Newsletter를 국제기구에 정기적으로 보내 관심있는 주제가 있으면 각 담당자들이 연락을 취해 협력사업을 논의하기도 함. KWDI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NGO의 역할은 중요함. 지난 몇 년동안 GO-NGO의 연계활동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 여성정책의 특수성(여성운동과의 결

임없는 관계를 통한 정책형성)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재개해야 함.

5.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정책 설계 필요

-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 정책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국가의 정책은 그 나라만의 정치 시스템과 사회-경제적 시스템, 특유의 경제성장 동력 등 세부사항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임.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개별 국가의 특성과 맥락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함.
- 고정관념이 발전과 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UN은 각 국가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큰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프로젝트 착수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개별 국가별로 취해야 할 전략은 다름. 한국의 경우, 서구의 여성정책을 참고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유일한 목적이나 비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임.

Ⅲ. 출장 결과 활용

1. 여성정책의 국제적 흐름 속 한국 여성정책의 위치 및 현황 점검

- 국제 사회의 시선을 통해 본 국내 여성정책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정리·분석

2. 국내 여성정책 미래전망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강구

- 여성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2차년도 연구와 연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개발

IV. 기타

* 주요 인사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민원	OECD Social Policy Division	2, rue du Conseiller Collignon 75016 Paris, France	33 (0) 1 45 24 96 32	minwon.lee@oecd.org
Willem Adema	OECD Social Policy Division	2, rue du Conseiller Collignon 75016 Paris, France	33 (0) 1 45 24 15 57	willem.adema@oecd.org
Melanie Fassbender	OECD MENA-OECD Governance Programme	2, rue du Conseiller Collignon 75016 Paris, France	33 (0) 1 45 24 13 59	melanie.fassbender@ oecd.org
강경화	UN OHCHR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 Palais Wilson UN Office at Geneva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41 (0) 22 917 92 96	kwkang@ohchr.org
Isha Dyfan	UN OHCHR Women's Rights and Gender Section	OHCHR - Palais Wilson UN Office at Geneva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41 (0) 22 928 93 45	idyfan@ohchr.org
Ajith Sunghay	UN OHCHR Asia-Pacific Section	OHCHR - Palais Wilson UN Office at Geneva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41 (0) 22 928 93 53	asunghay@ohchr.org
Carolyn Hannan	University of Lund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Geography Lund, Sweden	46 46 730239	hannancarolyn@yahoo .com

* 입수 자료 목록

OECD(2011), Report on the Gender Initiative: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HCHR(2010), OHCHR REPORT 2010

Kvinder, Køn og Forskning(2011), Gender and Development +15 -from policy to
practice